

광양시-포스코퓨처엠, 인재 양성·채용 업무협약

이차전지 소재산업 구인난 해소·청년일자리 창출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 다양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광양시와 ㈜포스코퓨처엠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등은 광양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이차전지 소재산업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요구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인력 채용 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사업으로 양성된 광양시 청년을 우대 채용하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인성·상식·현장 교육·모의 면접 등 협력기로 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 인재 양성 등 한국판 뉴딜 산업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퓨처엠은 9323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22년 11월 울촌산단 내 연산 9만 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종합 준공했다. 8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산단 내 연산 5.25만 t 규모의 양극재 공장 추가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해 훌륭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시에서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다양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이 광양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있다.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포스코필라리리튬솔루션과 채용 약정을 통한 이차전지 소재 채용약정형 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교육인원 50명 전원 조기 취업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군, 지역사회 예방적 노인 돌봄 체계 구축 박차

보성군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노인 돌봄 체계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와 AI 돌봄 로봇 확대 보급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역 사회 예방적 노인 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9월 기준 대상자 2,890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장비 1,292대를 설치·보급하고 있다.

또한, 시책 사업으로 어르신 정서 안심 케어 로봇인 AI 돌봄 로봇 40대 보급,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는 대상자의 집에 화재, 가스 감지기, 활동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돌봄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원과 응급 관리 요원이 신속히 출동하는 서비스이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경우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지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준비 착착...11월 3~5일까지

고흥군이 우주를 넘어 항공 분야에서도 주도권 선점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흥항공센터 일원에서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라남도도와 고흥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드론산업진흥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엑스포는 미래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본 지역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행보를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지역적 호기를 맞이해 드론·UAM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엑스포 행사장을 UAM존과 드론존으로 나눠 다채롭고 풍성하게 꾸밀 계획이다.

UAM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실증기업에서 눈여겨 볼만한 UAM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드론존에서는 현재 실생활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드론 기체 등이 전시되는 것은 물론, 국방 무인 정찰 드론까지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드론캠퍼블, 드론농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외 부대행사로 전국 드론 낚시대회(11월 4일)와 전국 드론 축구대회(11월 5일) 이틀간 연속해서 개최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추석엔 순천만정원에서...’ 순천시, 오감만족 이벤트 매일 개최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관람객들과 함께 하는 정원 속 이색 이벤트가 펼쳐진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연휴 기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힐링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행사가 매일 새롭게 준비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직위는 각 대회에서 우승자를 선발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해당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면 당일 오후 2시까지 동문 잔디광장 현장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연휴 기간 이력 메인 이벤트 외에도 캐릭터 의상 및 한복 체험, 민속놀이, 예코파우치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

니 먹이주기 체험 ▲앵무새와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가 열린다.

노관규 이사장은 “모처럼 긴 황금연휴를 앞두고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오시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발한 억만송이 국화와 함께 정원에서 누리는 각종 이벤트와 행사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6월 23일 500만 관람객 돌파 이후 2달여 만에 600만 관람객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목표관람객인 800만명의 82%에 해당하는 650여만명이 다녀갔다.

조직위는 가을철로 접어들어 9월과 10월 ▲황금빛 갈대의 향연 ‘순천만습지’ ▲억만송이 국화와 꽃 피운 국가정원 ▲가을 정취를 자아낼 다양한 문화 행사 등으로 완성도 높은 가을정원을 연출한다.

순천=김승호기자

정원에서 힐링하면서 즐기는 선물 같은 시간 연속 황금빛 갈대의 향연 만끽하며 걷는 '가을정원' 연출

우선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잔디광장에서 ▲나도 노래 잘함(관람객 노래자랑) ▲우주최강엄마 팔씨름 대회 ▲전국 어린이 포켓몬 딱지 배틀 ▲정원 발품도르, 주인공은 나야(신발 던지기 게임) 등이 차례로 열린다.

된다.

또 정원박람회 인기 콘텐츠 중 하나인 어린이동물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부터 10월 2일, 5일간 ▲다람쥐원숭이 '정물순'인종샷 이벤트 ▲알파카 복주머



여수시, '벼농사 종합평가회' 열어 1년 농사 평가·분석

여수시가 지난 21일 벼 수확에 앞서 한해 농사를 분석하는 종합평가회를 열고 올해 작황이 작년보다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소라면 대곡마을에서 열린 평가회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도·시의원, 농업인과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벼농사 작황 및 품종특성,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고, 여수지역 적합 품종 선발을 위한 품종비교 시험포를 통해 신품종별 특성 등이 공유됐다.

올해 여수시는 5-6월 모판관주처리 약제와 7-8월 돌발벼해충 방제약제 공급 등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7월 잦은 강우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 도복과 수확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는 태풍과 8-9월 일조량 증가로 벼 작황이 작년보다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김현근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